

# 디지털 시대의 회색문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Utilization of the Grey Literature in Digital Age

남 영 준<sup>1)</sup>

## <목차>

I 서론	III. 회색문헌의 이용 활성화 방안
II 회색문헌의 범주	가. 이용자 분석
가. 회색문헌의 특성	나. 정보관리담당자 분석
나. 회색문헌의 종류	IV 결론
다. 회색문헌의 유용성 평가	<참고문헌>

## <초록>

본 연구는 회색문헌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회색문헌이 학술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선행 연구결과를 재해석하여 회색문헌의 표준적 정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회색문헌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 연구의 이용자 설문을 재해석하였으며, 정보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회색문헌 활성화를 위한 집중관리기관 설립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직도 국내에서는 이용자와 정보관리담당자들은 회색문헌의 경계와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다. 또한 회색문헌의 활용도는 이용자의 인지여부와 정보관리 담당자의 인지여부에 크게 좌우되었다. 회색문헌의 수집과 관리, 배포를 위해서는 회색문헌집중관리기관이 필요하다.

## <Abstracts>

Despite of the importances, grey literatures are often overlooked as a resource in libraries because they have always had the reputation of being obscure and difficult to locate. Thus, an information system and network for the management of grey literature is essential to the improvement of Korean R&D in science and technology.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

- Declare the clear definitions and types of grey literatures
- Suggest the utilizing methods of grey literatures

1) 전주대학교 문헌정보학전공 부교수

이 연구는 2002년도 전주대학교 연구지원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졌음

- Identify the major functions or requirements of National Information Center on Grey Literature

## I 서론

현재 국민의 정부가 출범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한 가장 큰 역점사업은 전자정부 구축을 통한 선진국 진입이었다. 이는 국가내에서 생산되거나 혹은 해외의 중요한 모든 지식정보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집·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내 구성원들이 지식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국민이나 혹은 단체, 기관의 경쟁력 고취를 통해 거시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고취하도록 하는 원대한 이상을 실현하는 지적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다.

국가내에서 생산되는 지식은 크게 외부 공표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특정 집단 내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는 각종 학술단체에서 출판되는 학술잡지에 게재된 논문과 각종 서적을 비롯하여 다양한 물리적 형태의 출판물을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제한된 내부인원만 열람을 허락하는 자료의 형태로서 내부 보고서나 혹은 회람, 매뉴얼 등과 같은 자료를 들 수 있다. 후자의 경우를 회색문헌(grey literature)라고 통칭하며, 이러한 형태의 자료는 특성상 외부 공개보다는 내부 열람의 특성을 띠고 있다.

실제 회색문헌들은 특정한 형식이나 심사규정이 없고, 판매를 목적으로 개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료의 출간과 배포가 제한된 범위에서만 이루어져 정보의 전달력이 상대적으로 백색문헌에 비해 빠르게 독자에게 전달된다.

이러한 특성은 정보 입수와 평가, 적용에 시간의 제한을 극복하는 것이 새로운 경쟁력이 되는 현대 정보화사회에서는 새로운 기술이나 경향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의적절한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최대의 덕목이 되고 있다.

한편 21세기에 이르러 각 국은 자국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이외에 자국에 이익이 되는 모든 정보들을 수집하여 이를 국가자원으로 축적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수집대상에는 백색문헌 외에 주요 회색문헌이 포함된다. 왜냐하면 지식자원이 국가의 경쟁력으로 인정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과거 물질 국가 자원보다 훨씬 부가가치가 높은 국가자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회색문헌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비롯하여 정보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었다.

본 연구는 이점에 착안하여 회색문헌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회색문헌이 학술적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자 한다. 회색문헌에 대한 정의는 기존 설문조사를 비롯한 선행연구들에서 제시한 내용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분석하여 제시한다. 또한 회색문헌의 가치에 대해서는 기존의 설문조사와 경영분야의 기업내부 보고서와 문헌정보학회지에 게재된 학술논문의 참고문헌에 나타난 회색문헌의 인용횟수에 근거하여 그 가치를 재평가한다. 또한 회색문헌 활성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이 평가와 방안은 향후 회색문헌 집중관리 기관의 구축에 필요한 기본적인 자료가 될 것이다.

## II. 회색문헌의 범주

회색문헌의 기준을 분명하게 정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서지사항이나 출판사항의 차이점만으로 회색문헌의 범주에 배정하기에는 현재 출간되고 있는 회색문헌도 백색문헌의 특성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언어적으로 회색(grey color)은 회색계열의 커다란 범주를 의미하는 단어일 뿐이지만 실제로 시각적으로 회색의 종류는 셀 수 없이 많은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회색을 시각적으로 하나의 개념을 갖는 ‘회색은 이런 색이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여 선언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회색의 범위가 무한대인 것처럼 회색문헌도 특정자료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따라 어느 부분부터 회색문헌이고 특정한 부분부터 백색문헌이라고 정확하게 ‘정의(define)’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국내외적으로 회색문헌의 특성에 대해 발표한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최대 공약수를 도출하여 회색문헌의 정의를 제시하고, 회색문헌의 종류를 조사한다.

### 가. 회색문헌의 특성

회색문헌이란 명칭은 서지정보원을 통해 공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확인과 접근 및 이용이 불투명한 정보자료들을 통칭하고 있다. 단 여기에서 표현하는 불투명이라는 의미는 정보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며 다만 발행목적에 의해 갖게 되는 유통상의 특성이란 것을 지칭할 뿐이다.

회색문헌 범주에 포함되는 자료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성에 대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조건을 조사하면 다음과 같다.

Almeida(1999) 등은 회색문헌의 특성을 자료의 출판 및 형태의 자유로움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 편집과 생산에 매우 유연하다.
- 국가 표준이나 국제 표준의 준수여부에 있어 매우 자유롭다.
- 자료의 처리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 간결성(conciseness): 전통적인 문헌에 비해 내용이나 기술이 매우 간결하다. 왜냐하면 이는 출판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의 회색문헌이 생산된 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백색문헌으로 변화되는 경향이 있다. 즉, 회색문헌이 출간된 후에 일정 기간이 흐르면서 서지정보를 비롯한 형태요소들이 공식화되면 상업적인 출판물이나 학술지와 같은 공식적인 출판물의 형태로 전이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 기관생산을 특징으로 한다. 즉, 대부분의 회색문헌은 정부나 정부지원단체에서 주로

생산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Farrace(1997)는 회색문헌에 대해 “그것이 인쇄형태이든 전자형태이든 정부와 학술단체, 기업에서 생산하는 자료로써 상업적 출판사와 무관하게 출판된 모든 자료를 회색문헌으로 간주한다.”라고 주장하여 회색문헌의 범주를 매우 포괄적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Owen(1997)은 회색문헌의 특징을 전통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으로 구별하고 있다. 특히 미래의 회색문헌에 대한 자료의 접근용이도가 백색문헌의 수준으로 이용자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출판의 주체가 여전히 상업 출판사보다는 특정 기관단체이며, 이로 인해 발행이 자유로울 것이나 새로운 기술로 회색문헌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백색문헌과 회색문헌의 차이점을 출판의 양 등과 같은 8가지 기준으로 <표 1>과 같이 비교하였다. 이 표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미래에는 회색문헌을 웹과 같은 통신망을 이용하여 모든 이용자가 아무런 제약없이 열람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지금과 같이 이용자의 범위로써 회색과 백색문헌을 구분하는 기준은 점차 희미해질 것이다. 예를 들면, 학위논문은 고학력 사회로의 진입으로 점차 증가할 것이며, 일반 상업 출판사가 아니라 대학교라는 주체가 생산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각 연구결과를 연구논문의 기술원칙에 따라 서론과 본론, 결론으로 매우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항상 일정 수 이상의 심사(평가)위원이 있어 전통적인 평가과정을 거치고 있다. 따라서 Owen을 비롯한 많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회색문헌의 유형별 특징을 기준으로 할 때, 학위논문은 백색문헌에 가까운 회색자료로 판단된다.

<표 1> 백색문헌과 회색문헌의 특성별 비교

	회색문헌	백색문헌
출판의 양	증가	감소
생산과 전파의 속도	높음	낮음
정보이용료	낮음, 감소	높음, 증가
접근성	전역적, 무제한적	제한적
품질수준	신기술에 의해 개선	전통적인 평가과정을 거침
보존	대량보존과 기술적노화의 문제	법적 제약과 기술적 노화
사서의 역할	전통적 역할감소 新서비스 제공기회	법적 제약
출판사의 역할	한계내 제한적 지원기능	감소

이와 같이 회색문헌의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회색문헌의 범주나 혹은 유형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통적 기준을 중심으로 회색문헌의 기본 범주를 설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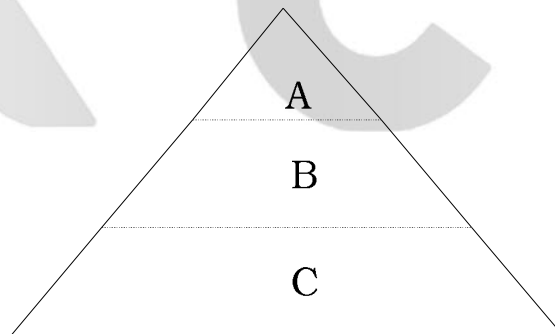
회색문헌은 다음과 같이 공통적 특징을 갖고 있다. 1) 통일된 서지 사항이 없기 때문에 발행 후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 2) 이로 인해 외부이용자가 회색문헌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준화된 서지 유틸리티도 미약하다. 3) 이를 처리·보존하는 기준이 각 기관마다 다르며 외부이용자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회색문헌관련 목록작성이 어렵다.

## 나. 회색문헌의 종류

회색문헌은 일반 백색문헌과 구별되는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구분이 가능한 것은 각각의 자료들이 갖는 발행 목적의 차이 때문이다. 또한 유형별 특징에 따라 회색문헌을 여러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다.

일반자료와 회색문헌과의 일반적인 분류기준은 생산과정의 비정형성을 비롯하여 자료 확인에서의 모호성, 그리고 자료 입수의 난이성 등이 포함된다.

한편 이러한 특성을 갖는 자료들도 조건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회색문헌을 하나의 용어로 통칭할 수 없어 그 유형에 따라 대상 자료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Almeida 등(1999)은 미국 CNR(National Research Center)에서 사용하고 있는 회색문헌의 종류를 회색의 농도(tones)와 배포 범위의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그에 따르면 회색문헌을 다음 세단계로 구분하였다. 1)일반적으로 백색문헌에 가까운 회색문헌과 2)일반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회색문헌, 3)매우 특징적인 회색문헌으로서 일반인들이 잘 볼 수 없는 회색문헌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백색문헌에 가까운 회색문헌이 상대적으로 특정성이 매우 높은 회색문헌에 비해 그 양이 매우 많기 때문에 다음 <그림-1>과 같이 삼각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특정성(회색)의 높음에 따라 그 수가 줄며, 특정성이 줄어들수록(회색이 옅어질수록) 회색문헌의 양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1> 회색문헌 범주화(濃淡 기준)

A는 진한 회색 문헌으로써 개인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활용하며, 출판되지 않는 형태의 원고류가 이에 해당한다. B는 중간 회색(medium Grey)으로써 보고서나 논문 등이 이에 해당하며, 진한 회색문헌에 비해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알 수 있다. C는 연한 회색문헌으로써 회의록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백색문헌에 가장 가까우며 생산량도 가장 많다.

각각의 범주에 포함되는 회색문헌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예시하고 있다.

- 연한 회색자료(light grey literature): 외부에 보급이 예정된 자료로서 공식보고서, 통계분석, 표준, 뉴스레터, 법률·입법분석, 출판예정논문, 회의자료 등이 포함된다.
- 중간 회색자료(medium grey literature): 과학연구분야의 공동체에서 생산된 자료로

서, 외부 보급의 목적이 없으며 공지하지 않을 수도 있는 자료로서, 학위논문이나 내부보고서 등이 포함된다.

- 진한 회색자료(dark grey literature): 정보시스템에 기록되지 않아 추적하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한 자료로서 각종 연구개발의 연구제안서가 해당된다.

정현이(2000)는 회색문헌을 ‘최신정보원으로서 가치가 있지만, 공식적인 출판 경로를 통해 생산·배포되지 않는 자료로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자료를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이와 함께 회색문헌의 특징으로 ‘일반적인 출판물의 판매·유통으로는 구입하기 어려운 문헌으로 그 범위를 매우 확대·해석하고 있다. 즉, 최신정보로써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모든 자료가 회색문헌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회색문헌이 발표된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되면 내부적으로 공표된 연구결과들이 학회지나 학회논문 등으로 출간되어 백색문헌이 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는 이 기준에 따라 회색문헌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기밀문서, 연구보고서, 회의자료, 학위논문, 번역자료, 제안 문서, 각종 통계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배창섭(1997)은 회색문헌을 ‘기밀문서 등으로 일반적인 출판물 판매·유통으로는 입수할 수 없는 문헌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특징인을 대상으로 배포선이 소수의 사람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간행부수가 적고, 비매품이며, 서지사항이 불충분하고, 통일성이 없다는 것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정의하였다. 그는 회색문헌의 종류를 ‘병원이 간행한 회보, 논문집, 년보 등’을 비롯하여 ‘행정기관의 각종심의회·위원회 등이 간행한 보고서, 제안서, 위탁연구보고서’ 등과 같이 기관별로 발간한 회색자료의 종류를 제시하였다.

그는 회색자료의 생산기관으로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는 기관(재단, 협회 등), 기업별 연구소(씽크 탱크), 병원이나 대학과 같은 연구성향을 갖고 있는 기관, 일반기업 등을 모두 포함시켰다. 또한 회색문헌을 각 기관에서 발간되는 대부분의 내부 자료들로 정의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으로 그는 회색문헌의 종류를 모든 기관 생산 보고서류를 모두 포함시키고 있었다. 예를 들면, 병원 등에서 발행한 논문집과 같이 백색문헌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도 발행의 주체가 병원이기 때문에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병원과 같은 기관에서 발행하는 논문집의 경우에 유통과 배포보다는 내부 지식으로 활용하는 자료로써 활용면에서 회색문헌에 가깝다고 간주한 것으로 판단한다.

최선희 등(1997)은 회색문헌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회의자료, 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학위논문, 출판전 배포문, 번역자료, 정부 문서, 공공 연구기관의 프로젝트에 관한 문서, 정책 관련 보고서, 환경모니터링 데이터, 위성데이터, 사내 저널, 회사연감, 시장조사, 기술조사 등’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종류가 모두 동일한 가치를 지닌 회색문헌의 경우보다는 회색의 정도에 따라 회색문헌의 범주와 그 범주에 해당하는 특성을 구분할 수 있도록 회색문헌을 회색의 농담(濃淡: tones)으로 구분하였다. 특징적인 것으로 제안문서(proposal 혹은 제안서)를 회색문헌의 범주로 선정한 것은 그들이 소장하고 있는 제안서의 중요성에 비해 많은 제안서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회색정보로서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

단한다.

김미영(2002)은 회색문헌을 형식적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 '회색문헌은 생산, 유통, 자료의 이용자 및 서지 기술적 특성이 독특하여 공식적인 출판경로를 통해서도 입수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비공식정보원으로써 연구보고서, 각종 회의자료, 학위논문, 번역자료, 제안문서, 통계자료 등의 자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Auger(1996)는 회색문헌에 대해 미국의 과학기술연방회(Federal Council for Science and Technology)에서 기술보고서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여 회색문헌의 범주를 보고서로 한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 개인의 출판전 배포문(preprint)
- 연구계획을 위해 지식이 내재된 제안서(proposal)
- 예산집행을 설명하고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기관 보고서
- 계약진행 보고서
- 기술계약에 관한 최종보고서
- 주제기술 보고서
- 보고서 형태의 책(리뷰 또는 조사서)
- 위원회 보고서

Farace(1997)는 '회색문헌은 모든 정부와 학술단체, 기업, 회사 등에서 인쇄물의 형태와 전자형태로 발간되지만 상업적인 이익을 바라지 않는 통제되지 않는 자료이다. 특히 외부 출판은 고려되지 않는 자료이다.'라고 자료의 형태가 아니라 내부에서 생산되는 자료 가운데 비상업적 정보를 회색문헌으로 정의하였다.

Almeida 등(1999)은 회색문헌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었다.

- 회의록 (proceedings) : 학회나 단체, 학술대회에서 논문의 내용과 함께 구술적으로 자신의 의견이나 지식을 표현하기 위해 마련된 장소에서 발표한 것을 출판 혹은 정기적으로 모아놓은 자료집이나 출판물 등
- 노르마 (norms) : 하나의 고정된 형태의 제품(유형적 혹은 무형적)을 동일하게 생산하기 위해 특정집단에서 상호 인정한 표준 혹은 규준서
- 보고서 (reports) :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 기술 혹은 과학연구의 결과를 보여주는 출판물
- 특허 (patents) : 자신의 창작품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특정한 기관에 출원을 위한 목적으로 제출된 문서
- 상업용 문서(commercial literature) : 특정한 회사에서 자신이 개발한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선전하기 위해 작성한 일련의 문서류
- 박사학위논문 (Ph.D) :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연구학위논문
- 회보 (bulletin) : 항구적인 특정한 기관이나 학회에서 발간되는 회보
- 공식출판물(official publications) : 정부나 행정부와 관계된 단체에서 편집한 자료

Almeida 등은 특허자료와 같이 국가에서 고정된 기준에 따라 자료의 질(quality)과 발행

및 권리소장과 같이 모든 서지사항이 정확한 자료도 회색문헌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과 학위 논문 가운데 오직 박사학위논문만을 회색문헌에 포함시켜 회색문헌의 범주와 종류를 상대적으로 축소하였다.

Jeffery(1997)는 CERIF 회의에서 ‘회색문헌은 연구개발과정(R&D)에서 생성된 대부분의 연구결과물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즉, 그는 회색문헌을 기관이나 단체에서 생산하고 있는 것 가운데 완성도가 높고 외부로 발표된 연구결과물로 정의하고 있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정 산물 가운데 회색문헌의 범주에 선정(굵은 글자)된 것이다.

- 출판물: 학술지 / 대회논문, 기술보고서, 논문, 학위논문, 보고서
- 특허
- 생산물: 시제품, 완전하게 개발된 제품
- 결과물: **시각적으로 발표한 데이터 및 발표자료**
- 노하우 및 IPR: **보고서**, 절차지침서
- 교육 및 훈련 : **교육자료, 학위자료**
- 공표자료: **보도문, 홍보 전단**

이와 같이 국내외에서 제시하고 있는 회색문헌의 유형과 범주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즉, 회색문헌의 종류에 대한 기준은 각 연구자들이 소속된 기관이나 혹은 관심있는 기관만이 생산 혹은 수집하는 자료들을 회색문헌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었다. 예를 들면, 연구 제안에 따른 공모과정을 거치는 기관에서는 연구제안서(proposal)등을 주요한 회색문헌으로 간주하고 있었으며, 회색문헌 전문 유통기관에서는 기관에서 생산되는 보고서류를 모두 회색문헌으로 간주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유형별 구분을 참고로 하여 표준적인 회색문헌의 표준 종류는 크게 보고서와 문서, 대학간행물, 사내자료, 회의록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보고서류: 개인의 출판전 배포문 (preprint)
  - 제안보고서, 계약진행보고서(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 기관보고서(institutional reports)
  - 개별주제보고서(separate topical reports: 기술노트, 연구메모, 기술메모 등을 포함)
  - 위원회보고서(committee type reports)
  - 리뷰 또는 조사서
- 문서류: 기밀문서, 제안문서, 내부문서(회의문서 포함)
- 대학간행물: 학위논문, 세미나자료, 학술회의 발표자료, 강연회자료
- 사내자료(in-house materials): 뉴스레터, 회의자료
- 회의록(proceedings)

다. 회색문헌의 유용성 평가

국내외에서 회색문헌에 관한 연구들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에는 반드시 회색문헌의 가치나 유용성에 대해 많은 강조를 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분야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회색문헌에 대한 연구의존도는 여러 연구결과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회색문헌 유용성 평가는 크게 이용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구조로써 파악하는 것과 실제 회색문헌이 사용된 패턴을 특정 주제분야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 1. 이용자 중심의 포괄적 평가

대부분의 이용자 중심의 포괄적 평가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회색문헌에 대한 일반적인 의견을 조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Sturges(1997)는 회색문헌이 개발도상국과 같이 사회의 지적자산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국가에서는 정부와 비정부기구(NGOs: non governmental organizations)를 비롯한 개인기업에 이르기까지 여러 분야에서 매우 유용한 지적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는 소사하라지역의 주변국가 특히 케냐를 대상으로 회색문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해 조사하며 그 예로써 국제 금융단체의 통계 자료가 자국에서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설문으로 입증하였다. 또한 개발도상국 외에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도 분야별로 회색문헌에 대한 활용도를 조사하고, 인터넷과 같은 새로운 통신망을 통해 회색문헌을 보다 유효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도 국가 지식 확보에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Luzi(1993)도 상업용 데이터베이스에서 상업적으로 회색문헌을 입수하는 이용자 패턴을 조사하여 회색문헌이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음을 입증하는 실험을 하였다. 그는 회색문헌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회색문헌의 입수는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회색문헌을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게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이용자들은 회색문헌의 입수에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회색문헌의 학술적 가치와 함께 상업적 가치가 있음을 조사하였다. 그는 실제 DIALOG사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어느 정도의 회색문헌이 들어있는지를 측정하였으며,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문헌의 출력결과에서 이용자들이 검색한 결과에서 전통적인 백색문헌과 회색문헌의 백분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회색문헌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수집이 어렵다는 것과 효과적인 정보제공을 위해서는 회색문헌관리에 따른 표준화 방안을 역설하였다.

김영미(2002)는 '최신의 연구성과에 대해 학술지의 논문이나 단행본에서보다 더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빠른 유통속도와 후속 연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회색문헌은 공식문헌인 연속간행물, 단행본 등에 비해 중요도가 결코 뒤떨어지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색문헌이 도서관 등에서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은 깔끔하게 체분되어 주제별로 정리되어 있는 도서관장서에 비해 몇 장 안 되는 회색문헌을 입수하기까지는 몇 배의 시간과 노력이 드는데 이는 자료의 특성상 공식적인 유통경로를 거치지

않아 생산정보의 파악과 실제 문헌수집이 힘들다'고 주장하여 회색문헌이 중요하지만 입수가 어렵기 때문에 이용도가 떨어진다고 하였다.

정현이(2000)는 회색문헌의 가치에 대해 회색문헌 유통구조상의 어려움 때문에 회색문헌으로서 중요성이 증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회색문헌을 발행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문헌의 발행과 유통에 있어서 신속성,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의 세밀함을 가지고 이용자에게 많은 이익을 제공하므로 그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회색문헌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출판되는 문헌이 아니므로 안전 혹은 비밀 분류를 함으로써 그 중요성이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여, 회색문헌이 공개되지 않는 특성 때문에 중요하다는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가치로 회색문헌의 유용성을 표현하고 있다.

회색문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분야별 혹은 주제별로 어느 정도의 공헌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수치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Aina(1997)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커리큘럼 구성에서 참고문헌을 제시하는 가운데 회색문헌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조사하였다. 조사의 방법은 참고문헌의 수와 실제 논문을 집필하면서 어느 정도 인용되었는지(피인용도)를 일반 과학, 인문학, 교육학, 농학, 경영학, 사회과학 및 도서관학을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인문학의 경우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백색문헌과 비교하여 인용문의 63.3%가 회색문헌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한 것을 발표하였다. 한편, 일반과학의 경우 인용문의 23.8%만이 회색문헌을 인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을 실제 실험으로 보여 주었다. 이는 인용빈도로 조사한 것으로 동일한 자료의 중복횟수를 고려하여 하나의 회색문헌이 여러 번 인용된 것을 허용한 수치이다. 실제로 참고문헌에 기술된 자료 가운데 게재된 회색문헌의 유용성을 측정한 수치조사에서 사회과학분야와 도서관학분야, 인문학 분야가 백색문헌보다 높은 가치를 지닌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일곱개 분야의 전체적인 백분율에서 백색문헌은 참고문헌의 52.6%를 차지하였으며, 회색문헌은 47.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실제로 회색문헌의 생산성이 백색문헌에 비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문헌의 양은 백색문헌에 비해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회색문헌의 수는 백색문헌보다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실제 회색문헌이 백색문헌과 같이 정상적인 유통을 거쳐 이용자에게 제공된다면 참고문헌자료의 활용도가 백색문헌보다 높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 결과는 아프리카의 보스와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적으로 또한 분야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회색문헌의 범주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Pinelli(1997) 등은 미국 정부간행 기술보고서와 항공 우주국에서 생산된 기술보고서에 대해 3,298명(학계와 정부, 산업계)을 대상으로 기술보고서의 유용성을 조사하였다. 비교대상은 회의록(대회논문집 포함)과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논문(Journal Article), 내부 기술보고서(In-house Technical Reports), 미국정부간행 기술보고서 등 네 종류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기술정보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 정보는 평균적으로 내부기술보고서를 필두로 회의록(대회논문집 포함), 논문기사, 정부간행 기술보고서 순이다.

기술정보 생산에 실제 사용한 건수는 내부 기술보고서를 필두로 회의록(대회논문집 포

함), 논문기사, 정부간행 기술보고서 순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한 순서와 동일하였다. 특이한 조사로는 내부 기술보고서가 어디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에서는 연구에 52.86%, 경영관리(management)에 21.54%, 교육에 16.2% 기타에 9.39%가 활용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즉, 내부보고서는 연구에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어 실무보다는 연구업무에 상대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기술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네 분야로 한정하여 조사한 것이나 설문조사집단이 매우 크고, 기술보고서의 중요도를 비롯하여 각 자료의 중요도를 측정할 최초의 대규모 조사였다.

<표-2>은 Pinelli(1997) 등이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내부보고서가 회의록을 비롯하여 각 정보 유형별로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내부보고서는 학술지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 정부기술보고서에 적게 인용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기술보고서를 중점적으로 집필하고 있는 공무원들에게도 이용도가 낮은 것은 내부보고서의 객관성의 문제나 혹은 내부보고서의 일방적인 주장 때문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표-2> 미국내 보고서의 유용성 평가

정보의 종류	내부보고서 이용형태 (백분율)			평균이용율 (n = 1,839)	총응답수
	학자 (n = 341)	공무원 (n= 454)	산업인력 (n = 1,044)		
회의록	14.76	18.20	15.61	16.20	1,349
학술지	66.94	50.73	50.38	52.86	1,349
내부기술보고서	11.70	23.73	22.94	21.54	1,349
미정부기술보고서	6.70	7.33	11.07	9.39	1,349

<표-3>은 Pinelli(1997) 등이 미국내에서 생산되는 미국 정부기술보고서가 회의록을 비롯하여 각계 연구진들에게 정보 종류별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미국 정부보고서도 평균적으로 학술지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 정부기술보고서의 구성에 가장 적게 쓰이고 있어 보고서는 자체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매우 특이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연구평가 혹은 업무의 활용이 미국 정부기술보고서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표-3> 미국 정부보고서의 유용성 평가

정보의 종류	정부보고서 이용형태 (백분율)			사용평균율 (n = 1,839)	총응답수
	학자 (n = 341)	공무원 (n= 454)	산업인력 (n = 1,044)		
회의록	17.04	18.79	18.11	18.09	1,332
학술지	70.50	52.60	52.18	55.89	1,332
내부기술보고서	7.71	20.09	19.25	17.22	1,332
미정부기술보고서	4.75	8.52	10.47	8.80	1,332

한편, 이와 같은 연구들은 외국의 선례로서 조사된 것이고 실제 국내에서 회색문헌의 중요도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는 정현이(2000)의 연구가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였다. 그는 이 연구에서 많은 설문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그 가운데 <표-4>와 같이 회색문헌의 중요성을 다섯 단계로 구분하여 회색문헌이용자를 대상으로 회색문헌이 정보로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표-4> 회색문헌의 중요성평가

정보로서의 가치	응답자(명)	비율(%)
매우 중요하다	26	28.9
중요하다	43	47.8
보통이다	18	20.0
중요하지 않다	2	2.2
모르겠다	1	1.1
합계	90	100

이 조사는 이용자의 회색문헌에 대한 표면적 생각을 매우 단순하게 조사한 것으로써 이용자의 76.7%가 회색문헌이 ‘중요한 것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부정적인 대답은 전체 조사대상자 90명 가운데 세 명(3.3%)이 부정적으로 답을 하였다. 즉 조사 대상자들은 회색문헌의 가치에 대해 대부분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었다.

## 2. 활용중심의 특정분야 평가

앞의 연구들은 실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신들이 평소 연구과정에서 회색문헌의 사용도와 호감도에 대해 주관적으로 조사된 연구결과이다. 한편, 이용자의 주관적인 의사개입이 없이 실제 학술지나 보고서, 연구활동에 회색문헌이 어느 정도 활용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결과와의 어느 정도 유의성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정보학분야와 일반경제분야에서 학술지와 보고서를 집필하는데 회색문헌이 어느 정도의 활용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의 대상은 2000년도 출판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53편과 삼성경제연구원(SERI)에서 1999년도부터 2002년까지 생산된 연구보고서가운데 참고문헌을 갖고 있는 28편의 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표-5>는 연구보고서와 학회지 논문을 작성하는데 백색문헌인 단행본을 비롯하여 회색문헌인 보고서 등의 인용빈도를 모두 조사한 것이다. 실험대상이 된 자료에 실린 참고문헌의 수는 총 1,751건으로 그 가운데 참고문헌수에서 인용된 보고서의 건수는 969건이며, 학회지는 782건이 인용되었다.

<표-5> 자료 생산성에 활용된 인용빈도

	정기간행물	학위논문	보고서	단행본	인터넷	기타	합계
SERI	102	9	499	236	91	32	969
학회지	356	50	11	260	73	32	782
합계	458	59	510	496	164	64	1751

<표-6>은 이러한 조사자료 가운데 본 연구에서 제안한 회색문헌의 범주를 학위논문과 보고서로 하며, 인터넷자료로써 회색문헌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상황에서 정기간행물과 단행본만을 백색문헌으로 간주하여 비교한 결과이다. 즉, 연구보고서에서 회색문헌이 참고문헌으로 활용된 비율은 52.41%였으며, 백색문헌의 경우에는 34.87%에 이르렀다. 이 조사에 따르면 회색문헌의 유용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즉 보고서의 생산에 있어 회색문헌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6> 보고서 발간에 있어 회색문헌의 활용도 평가

	정기간행물	학위논문	보고서	단행본	인터넷	기타	합계 (%)
SERI	10.52%	0.92%	51.49%	24.35%	9.39%	3.3%	100%

<표-7>은 학술논문의 작성시에 회색문헌이 참고문헌으로 어느 정도 사용되는지를 보여준 결과이다. 실제 회색문헌의 활용도는 7.79%이며, 백색문헌의 활용도는 78.76%이다. 이러한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자기 인용빈도와 문헌정보학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경영학이나 경제학에 비해 보고서와 같은 회색문헌이 적게 생산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제로 학술적인 것에 심사규정이나 학술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도 실제 활용이 되지 못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표-7> 학술논문구성에 있어 회색문헌의 유용성 평가

	정기간행물	학위논문	보고서	단행본	인터넷	기타	합계 (%)
학회지	45.52%	6.39%	1.4%	33.24%	9.33%	4.09%	100%

### III. 회색문헌의 이용 활성화 방안

회색문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색문헌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앞의 연구조사에서는 회색문헌을 '통상적인 출판물의 경로를 통하지 않아 입수에 어려운 자료'라고 정의하며, 회색문헌에 속하는 종류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비롯한 학위논

문, 회의록, 통계데이터 등으로 제한하였다.

이 가운데 기술보고서와 같은 각종 보고서류가 대표적인 회색문헌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 이용도가 다른 회색문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특징적인 것으로는 보고서에 대한 정의가 연구자 자신이 속해있는 기관의 내부자료에 기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내부이용이 많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는 실제 내부 보고서를 활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타 기관의 보고서도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보고서와 같은 회색문헌이 실제로 이용되기 위해서는 회색문헌의 이용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들이 실제로 회색문헌에 대한 인지도와 같은 이용자 패턴 분석이 필요하고, 기관별 담당자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생각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

## 가. 이용자 분석

정현이(2000)는 실제 국내 연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회색문헌과 백색문헌을 구별하고 그 차이점을 인지하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실제 연구원들 가운데 67.6%가 회색문헌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한다고 답을 하였다. 이는 연구자들이 실제 연구에 활용하는 자료이면서도 그것이 회색문헌이란 것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회색문헌을 사용하고 있는 결과이다. 또한 과학기술분야와 인문사회분야의 연구자들을 구별하여 회색문헌의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오히려 인문사회분야의 연구자들이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원 보다 회색문헌을 더 잘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5.0% 對 22.6%) 한편, 회색문헌의 수집창구로써 정보관리담당자와 같은 정식 유통선상에 있는 매개자보다 자신이 직접 입수한다는 응답도 거의 유사하게 나왔다. 이는 회색문헌유통의 왜곡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결과는 정보센터에 회색문헌이 풍부하게 소장되어 있을 경우에는 회색문헌의 이용수치가 높아진다는 조사결과이다. 이는 Martyn(1964)이 제기한 연구자들의 인용문헌 활용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는 '피인용자료들은 연구자들이 주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인용하기보다는 연구자들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자료만을 인용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즉, 회색문헌에 대해서도 해당 자료에 대한 완전한 서지사항을 파악하여 접근하기보다는 서가 브라우징을 통해 회색문헌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특히 회색문헌을 왜 활용하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자료의 입수가 용이하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까지 '자료 입수의 용이함'으로 간주할 경우에는 회색문헌을 이용자에게 가까이 비치하면 그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Pinelli(1997) 등은 기술보고서의 이용도를 백색문헌인 학술지와 비교하여 얼마나 이용가치가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결과에 따르면 일반 학자들은 백색문헌인 학술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나, 백색문헌과 회색문헌을 비교할 경우에는 26.6%와 37.21%로 회색문헌의 연구 공헌도가 10.61%가 더 높았다. 또한 회색문헌의 이용의존도가 가장 높은 연구집단은 보고서 생산의 주된 주체인 산업현장에 있는 연구인력이었다. 또한 산업현장

의 연구인력들은 내부기술보고서에 대한 연구의존도도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상의 조사는 회색문헌의 중요도에 근거한 조사로서, 회색문헌을 왜 이용하지 않는가에 대한 부정적인 조사를 78명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연구결과에서 흥미로운 것은 26.9%의 연구자들이 회색문헌의 존재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회색문헌의 존재와 그 유용성을 인지한다면 회색문헌의 활용성이 증대할 것이다. 또한 이용하는 절차가 불편하다는 의견은 미 소장자료에 대해 회색문헌 공동목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표현되는 의견으로 판단된다. 이는 회색문헌 공유시스템이나 혹은 공동열람, 나아가서는 디지털 회색문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을 경우에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한편,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회색문헌의 생명주기와 제공범위를 조사한 결과 이용된 회색문헌의 출판 시기는 전체의 68.7%가 1년 미만의 최신자료만을 필요로 하였다. 또한 필요로 하는 회색문헌의 범위는 보고서의 원문이 54.2%에 달하여 전통적인 서지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디지털 시대의 이용자 욕구를 수용하지 못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 나. 정보관리담당자 분석

앞 절의 설문조사는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연구 가운데 회색문헌 이용자의 패턴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선택·분석한 것이다. 본 항에서는 실제 회색문헌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회색문헌 담당자<sup>2)</sup>에게 자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회색문헌에 대한 판단과 관리 현황을 조사하였다.

설문은 크게 회색문헌을 비롯한 주요 자료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관리담당자에 대한 회색문헌의 인지도와 회색문헌공유를 위한 기관 설립과 이의 협조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일차적으로 회색문헌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담당자에게 회색문헌이라는 명칭사용과 이의 별도관리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회색문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기관이 55.6%에 해당하여 실제로 백색문헌과 회색문헌을 구별하지 않는 기관이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보관리 담당자의 입장에서 정보의 제공에 있어 회색문헌과 백색문헌을 구분하여 제공하기보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회색문헌의 존재에 대한 인지보다는 주요 정보라고 판단될 경우에 굳이 회색문헌을 구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다.

두 번째는 정보관리담당자에게 회색문헌의 종류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든 정보관리 담당자들이 보고서와 사내자료를 대표적인 회색문헌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 형태의 자료는 국내외 모든 기관에서 회색문헌으로 구분한 것과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회의록과 대학간행물에 대해서는 분명한 회색문헌

2) 참여기관: 대학교(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연구기관(KISTI, KERIS, KIST,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국가기관(국회도서관)

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색문헌 범주로 판단하지 않는 기관이 많았다. 예를 들면, 지도(11.1%)와, 대학간행물(22.2%)과 같은 회색문헌에 대해서는 굳이 회색과 백색을 구별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회색문헌가운데 보고서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기관 전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내부분서자료나 사내자료, 지도와 같은 회색문헌들은 회색문헌 인지조사와 같이 동일한 시각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회색문헌으로 간주하는 것과 중요도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었다. 이는 회색문헌을 계획적으로 수집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입수순위와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앞의 조사는 정보관리담당자와의 의식조사였으며, 다음과 같이 회색문헌의 수집과 유통에 대한 설문도 실시하였다. 우선 회색문헌관리를 위한 집중관리기관이 필요한 것에 대한 의견 조사와 회색문헌 열람이 유료로 전환하여도 이를 이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기관의 입장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표-8>과 같았다. 모든 기관이 집중관리기관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유료로 회색문헌을 얻는 것에 대해서도 모두 긍정적으로 답을 하였다.

<표-8> 회색문헌 유통기관에 대한 의식조사

질 문	예	아니오	총계
회색문헌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9	.	9
유료로 서비스를 하여도 이용하시겠습니까?	9	.	9
합 계	100%		100%

회색문헌 총괄기관이 설립되었을 경우에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는 <표-9>와 같다. 그 결과 자료의 수집에 대해서는 조사대상기관 전 기관이 동의를 하였으며, 자료의 관리(서지관리 등)기능을 대부분의 기관이 요구하였다. 특별한 것은 1개 기관이 전자파일화를 기관이 수행해야할 요소로서 별도로 주문하였다.

<표-9> 총괄기관의 역할

질 문	자료의 수집	자료의 관리	기타	총계
총괄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은	9	(8)	(1)	9(9)
다음 사항 중 무엇입니까?	100.0%	(88.9%)	(11.1%)	100(100)%

회색문헌 집중관리기관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가운데 회색문헌의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회색문헌을 생산하고 있는 기관들이 자진하여 회색문헌을 집중관리센터에 등록하는 것이다. 따라서 <표-10>은 국가차원의 회색문헌집중관리기관이 설립될 경우에 참여할 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7개 기관이 긍정적으로 답을 하였으며, 1개 기관은 부정적인 답을, 한 개 기관은 무응답을 하였다. 무응답과 부정적인 결과는 회색문헌 집중관리센터의 역할을 자신이 소속한 기관에서 담당하지 않을 경우에

지원기관의 역할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인 것이라 판단한다. 이는 단수의 회색문헌 집중관리기관만이 설립될 경우에 기존에 회색문헌 집중관리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10> 콘소시움의 참여가능성 조사

질 문	예	아니오	무응답	총계
국가 회색문헌센터가 설립될 경우 콘소시움형태로 참여할 의향이 있습니까?	7	1	1	9
	77.8%	11.1%	11.1%	100%

## 다. 회색문헌 활성화 방안

앞의 연구결과에서 조사한 바와 같이 회색문헌은 국내외적으로 백색문헌과 유사한 혹은 그 이상의 학술적가치와 활용상 가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회색문헌이 이러한 가치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인지정도와 이를 관리하고 있는 정보관리담당자의 인지정도의 차이에 따라 입수에 어려움이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이용자들은 회색문헌에 대한 위치정보 이외에 원문정보까지도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요구수준은 정보관리담당자의 정보수집 요구수준과 거의 일치하고 있음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정보관리담당자는 회색문헌의 집중관리 필요성에 대해 모두 동감하고 있으며, 이를 유료화하였을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수용할 의사가 있음도 조사되었다. 이는 회색문헌의 수집의 어려움과 그 이용에 따른 반대급부를 모든 기관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회색문헌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색문헌의 수집과 관리, 배포과정에 대한 다음과 같은 것이 해결되어야 한다.

### 1) 회색문헌의 수집방안

앞의 조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이용자들은 회색문헌가운데 내부 보고서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기관내에서 소장하고 있는 회색문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색문헌의 출판 정보(holding & location data)를 알 수 있다면 이용자들의 회색문헌 활용도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한편 회색문헌은 내부 이용자들의 지식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개 혹은 납본, 등록에 대한 책임이 없다. 따라서 회색문헌의 등록을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법의 개정 혹은 새로운 등록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예를 들면, 회색문헌의 많은 부분이 국가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국가 자체가 주된 생산자이기 때문에 정부기록보존소와 같은 기관에서 국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자료를 일괄적으로 수집(혹은 납본 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등록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나 법의 개정과 강제조항의 신설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의 설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회색문헌 생산기관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여의 형태는 회색문헌의 이용에 콘소시움으로 참여하는 모든 기관에게 열람의 기회나 혹은 이용료의 분배와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도 있다

## 2) 회색문헌 종합목록 작성

회색문헌의 등록이 의무화되어 회색문헌의 생산정보가 입수되면 회색문헌 유통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회색문헌 종합목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회색문헌이 지니고 있는 학술적 가치와 상품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앞서 연구된 1년 미만의 최신 자료에 대한 즉각적인 목록정보가 필요하다. 이 목록정보는 실시간으로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지체없이(time lag) 이용자에게 배포될 수 있는 형태의 전자 종합목록이어야 한다. 즉, 회색문헌의 속보성 제공이라는 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회색문헌의 생산과 종합목록의 등록 및 활용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위한 회색문헌 종합목록이 작성되어야 한다.

## 3) 회색문헌의 전자파일화

회색문헌 종합목록의 형태가 전자목록일 경우에 이를 통해 출판정보를 입수하고 이용자인단에 따라 원문도 열람할 수 있도록 인터넷의 이용이 필요하다. 즉, 국내외 많은 회색문헌 이용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원문자체인 것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원문에 대한 전자파일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전자파일의 유통과 열람, 등록에 필요한 표준 기술규칙과 공동 뷰어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전자파일의 특성상 이의 복제나 불법적인 유통 등에 수반되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아카이빙의 기술개발과 함께 전자자료 파일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개발도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

## 4) 국가 수준의 회색문헌 집중관리 기관의 설립

외부이용자에 대한 회색문헌의 공개에 대해 일부 기관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는 회색문헌이 기관별 자산이라는 개념과 회색문헌보고서 공개에 따른 내용에 대한 외부이용자들의 항의와 같은 부정적인 피드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합목록의 참여와 회색문헌의 전자파일화 등은 필연적으로 시간적 경제적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즉, 요금 부과나 목록작성지원, 목록정보의 저장위치 및 공간의 확보 등과 같은 회색문헌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과 공간, 시설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집중관리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회색문헌의 포괄적인 수집과 정리, 관리, 전자파일화를 비롯하여 회색문헌 콘소시움에 참여한 기관과의 요금부과나 분배, 기술지원 등을 총괄할 수 있는 회색문헌 집중관리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와는 별도로 회색문헌 집중관리 기관에서는 회색문헌의 사용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위한 클리어링 하우스의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 수준의 회색문헌 집중관리기관에서 종합목록을 비롯한 웹을 통한 원문접근이 가능하게 이루어질 경우에 이용자와 정보관리담당자의 회색문헌 이용의 활성화는 급증

하게 될 것이다.

#### IV. 결론

개인을 비롯하여 기업, 나아가서는 국가기관까지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엄청난 양의 연구개발비(R&D)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지원의 결과들은 해당 기관의 주요한 지식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도서관계에서는 이러한 지식자원을 기존의 백색문헌과 비교하여 회색문헌이라고 하며 이의 연구적 가치나 상품적 활용에 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회색문헌에 관한 범주와 정의를 국내외 연구에 기반하여 도출하였다. 또한 국내외 연구에서 분석한 설문결과를 기초로 하여 회색문헌 활용에 있어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실제 국내 정보관리 담당자들이 회색문헌의 중요성과 활용, 집중관리기관에 대한 것을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궁극적으로 회색문헌 이용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제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국내 이용자들이 연구과정에서 회색문헌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32.4%가 회색문헌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실제 정보관리담당자들의 57.1%가 회색문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서 이용자와 도서관 현장에서 회색문헌에 대한 인식이 완전하게 정착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나) 정보관리담당자는 회색문헌 가운데 보고서를 활용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편 전통적으로 지도와 대학간행물은 회색문헌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으나 정보관리담당자들의 대부분은 회색문헌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회색문헌의 인지도 조사수치와 활용도 조사수치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특정기관이 회색문헌을 계획적으로 수집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에 입수의 우선 순위와도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었다.

다) 문헌정보학분야에서의 회색문헌 가치는 경영과학분야의 가치보다 낮았으나 국내 보고서에서는 그 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외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인문사회학 분야에서의 회색문헌의 가치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회색문헌의 집중관리에 대해서는 많은 기관들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유료화에 대해서도 회색문헌 집중관리기관의 설립과 관계없이 회색문헌을 유료로 이용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 회색문헌의 효과적인 수집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집중관리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 기관이 수행해야 할 기본 기능은 회색문헌의 효과적 수집을 비롯하여, 회색문헌의 종합목록 작성, 인터넷을 통한 열람을 위한 전자파일화, 저작권관리 기능을 갖는 클리어링 하우스, 수입에 따른 과금체제에 대한 기능이 필요하다.

회색문헌은 최신의 연구결과를 해당 주제분야의 중요한 정보원이기 때문에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수집과 접근을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국가 차원의 지식공유 환경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회색문헌 유통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와 관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이에 기반한 이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국가 차원의 회색문헌집중관리센터의 설립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Almeida, Mario do G.G. 1999. "Control Access for grey Literature in Brazil: A Proposal", In: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y Literature : *GL'99 Conference Proceedings* : Washington D.C., 4-5 October 1999. : 181-198.

C. P. Auger. 1996. *Information Sources in Grey Literature*. 4th ed. London, BOWKER-SAUR

Cano V. 1989. "Citation behaviour: Classification, Utility and Loc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 40 (4): 284-290

Daniela Luzi. 1993. "The Incidence of Grey Literature in On-line Data Bases : a Quantitative Analysis", In: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y Literature : *GL'93 Conference Proceedings* : Netherlands 13-15 December 1993. : 83-96.

J. Martyn, 1964. "Bibliographic Coupling," *Journal of Documentation* 20(3) : 236

Keith. G. Jeffery. 1997. An Architecture for Grey Literature in a R&D Context : *GL'97 Conference Proceedings* : Luxembourg 13-14 November 1997. : 88-108.

L. O. Aina. 1997. "The Management of Grey Literature as a Component of a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urriculum", In: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y Literature : *GL'97 Conference Proceedings* : Luxembourg 13-14 November 1997 : 251-258.

Marjorie Li. 1997. "Access to Multicultural/Multiethnic Grey Literature : A Network Approach Asian American Resources" In: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y Literature : *GL'97 Conference Proceedings* : Luxembourg 13-14 November 1997 : 92-101.

Owen, J. Mackenzie. 1997. The expanding of Grey Literature. In: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y Literature : *GL'97 Conference Proceedings* : Luxembourg 13-14

November. pp.9-13.

P. Sturges. 1997. "Social Intelligence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role of grey literature", In: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y Literature : *GL'97 Conference Proceedings* : Luxembourg 13-14 November 1997. : 31-45.

Thomas E. Pinelli, Vicki L. Golich. 1997. Emerging Trends in the Globalization of Knowledge: The Role of the Technical Report in Aerospace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y Literature : *GL'97 Conference Proceedings* : Luxembourg 13-14 November 1997. : 46-72.

김미영. 2002. 『회색문헌의 생산현황과 관리 - 부산대학교 내 37개 연구소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배창섭. 포커스/과학기술정보의 효과적 수집 및 DB활용(1). 국내 대형 서비스 업체를 적극 이용하라 <http://www.dpc.or.kr/dbworld/document/9703/focus.html> <2002.10.21>

신은자. 1996. 전자 회색문헌의 활용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 16(3) : 83-99.

정현이. 2000. 『회색문헌의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 17-22.

최선희, 조현양, 오상훈. 1997. 인터넷을 통한 회색문헌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연구. 『제4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 55-58.